

기후변화에 대한 각 국 대응 미흡해, 높은 우선순위 부여해야

월드퍼블릭오피니언(WPO) · EAI · 매일경제 국제현안조사

미국 매릴랜드 대학의 국제여론조사 연구기관인 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PIPA) · 월드퍼블릭오피니언(<http://www.WorldPublicOpinion.org>)은 세계 주요현안과 인권 의식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세계여론조사(World Public Opinion survey)를 매년 실시한다. 2009년 조사는 4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전 세계 인구의 62%를 포괄하는 19개국 나라 18,57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다. 동아시아연구원(EAI원장 : 이숙중 성대, <http://www.eai.or.kr>)과 매일경제신문(<http://www.mk.co.kr>)은 한국 측 조사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한국에서 의 조사는 전문여론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http://www.hrc.co.kr>) 담당했다. 주요 연구주제 및 조사 국가는 다음과 같다.

▣ 2009 세계여론조사 주제

- (1) 세계리더/ 아시아 리더십 평가(6.29 GMT 21:00)
- (2) 오바마 시대, 미국 해계모니의 기회와 도전(7.7 GMT 13:00)
- (3) 세계경제위기 진단과 해법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 (7.21 GMT 21:00)
- (4) 아프간 주둔 NATO 군 임무에 대한 인식 (7.23 GMT 21:00)
- (5) 지구온난화 인식과 각 국 정부 대책 평가 (7.28 GMT 21:00)**
- (6) 각국의 다수여론에 의한 소수여론 표현의 자유 억압 정도 평가
- (7) 종교 비판의 자유/ 동성애 문제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

* 괄호안은 엠바고 시간

▣ 여론브리핑 54호 목차... 대표집필 : 정한울 · 정원철

1. 세계여론, 기후변화에 보다 적극적인 정부 대응 요구
2. 환경이슈에 대한 여론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 : 워비곤 호수 효과

□ 내용문의

EAI 정한울 여론분석센터 부소장(02-2277-1683/018-280-3230/hwjeong@eai.or.kr)

EAI 정원철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02-2277-1683/017-279-4536/cwc@eai.or.kr)

EAI 이근수 거버넌스 연구팀 팀장(02-2277-1684/011-807-6023/ksyi@eai.or.kr)

□ 조사문의

한국리서치 김춘석 수석부장 (02-3014-0082/016-9525-8416/cskim@hrc.co.kr)

■ WPO 2009 세계여론조사 조사국

미주	미국 멕시코
유럽	독일 러시아 영국 우크라이나 폴란드 프랑스
중동	아제르바이잔** 이라크 이집트 팔레스타인 터키
아프리카	케냐 나이제리아
아시아	대만* 마카오*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파키스탄 한국 홍콩*

* 외교적으로 중국이 대표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WPO는 전체 평균 산정 시 독자적인 국가여론으로 산정하지 않음.

** 아제르바이잔은 경제위기 관련 문항을 조사하지 않음

■ 한국조사 개요

조사일시	6월 5일
모 집 단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표본크기	600명
표본추출	성, 연령, 지역 인구비례에 맞게 표본할당 후 무작위 추출
표집오차	무작위표본추출을 전제, 95%신뢰수준 ±4.1%
응 답 율	12.9%
조사방법	전화조사(CATI)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 노익상)

EAI WPO 국제현안연구팀

팀 장	이내영(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교수)
연구진	이숙종(EAI 원장, 성균관대 교수)
	전재성(EAI 아시아안보센터소장, 서울대 교수)
	이곤수(EAI 거버넌스 연구팀 팀장)
	정원철(EAI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월드퍼블릭오피니언(WorldPublicOpinion.Org)은?

월드퍼블릭오피니언(WPO)은 미국 매릴랜드대 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PIPA: Program on International Policy Attitudes 대표: Steven Kull 교수)가 주관하고 세계 주요국가의 연구조사기관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제여론을 분석하는 연구 프로그램이다. 2008년부터 매년 1~2회 20여국 국가에서 동시에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결과를 주요 언론 및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다. 한국에서는 동아시아연구원(EAI: East Asia Institute 원장: 이숙종)이 연구협력기관으로 매일경제가 한국측 보도기관으로 참여한다.

세계여론, 기후변화에 보다 적극적인 정부 대응 요구

세계인들은 기후변화(climate change)에 대해 정부의 지금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세계인의 60%가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정책에 지금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인들의 우려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국의 경우 이번 조사 참여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81%의 국민들이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해 지금보다 높은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 메릴랜드대의 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PIPA)이 한국의 동아시아연구원(EAI) 등과 함께 세계 19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전체 응답자 수는 18,578명이고 표집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서 $\pm 3\sim 4\%$ 이다.

각 국 정부 대응에 대한 자국 국민평가 인식 갈려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국민, 자국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우선순위 긍정평가
한국과 미국은 자국정부 기후변화정책 평가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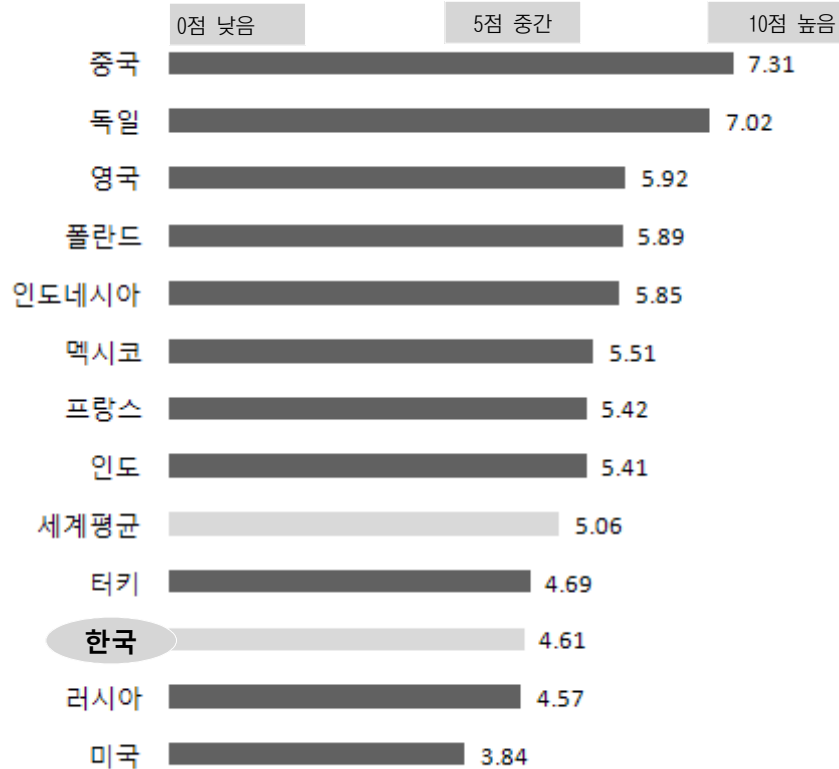
독일, 영국, 프랑스와 같은 서구 선진국 국민들과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강국 국민들의 경우 자기 나라 정부가 기후변화 문제에 높은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자기나라 정부가 기후변화에 얼마만큼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0점 만점(0점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10점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으로 답한 점수의 평균을 보면 독일 7.02점, 영국 5.92점, 폴란드 5.89점, 멕시코 5.51점, 프랑스 5.42점 등 OECD 소속 국가 국민들이 대체로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중국(7.31점), 인도네시아(5.85점), 인도(5.41점) 역시 자국 정부에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반면 중동 분쟁지역이나, 후발개도국 국민들의 경우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이라크 3.65점, 팔레스타인 4.18점, 케냐 4.29점 등이 대체로 자국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우선순위가 떨어진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 터키 등이 OECD 국가 중에서 자국 정부가 기후변화에 제대로 정책적 관심을 쏟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민들은 미국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해 10점 만점에 3.84점 정도의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한다고 답했고 터키 국민들 역시 4.69점으로 평가에 중간수준인 5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민들 역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에 대한 대대적인 강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후변화에 부여하는 정책우선순위를 10점 만점에 4.61점 정도로 낮게 평가했다.

[그림1] 자국 정부가 기후변화 정책에 부여하는 우선순위 평가 (10점 만점)



세계인의 60%, 자국 정부 기후변화정책 보다 높은 우선순위 부여해야

- 한국은 81%로 19개국 중 기후변화 정책 촉구 가장 높아,
- 녹색성장, 신성장 산업 정책의 의미와 함께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대책 강조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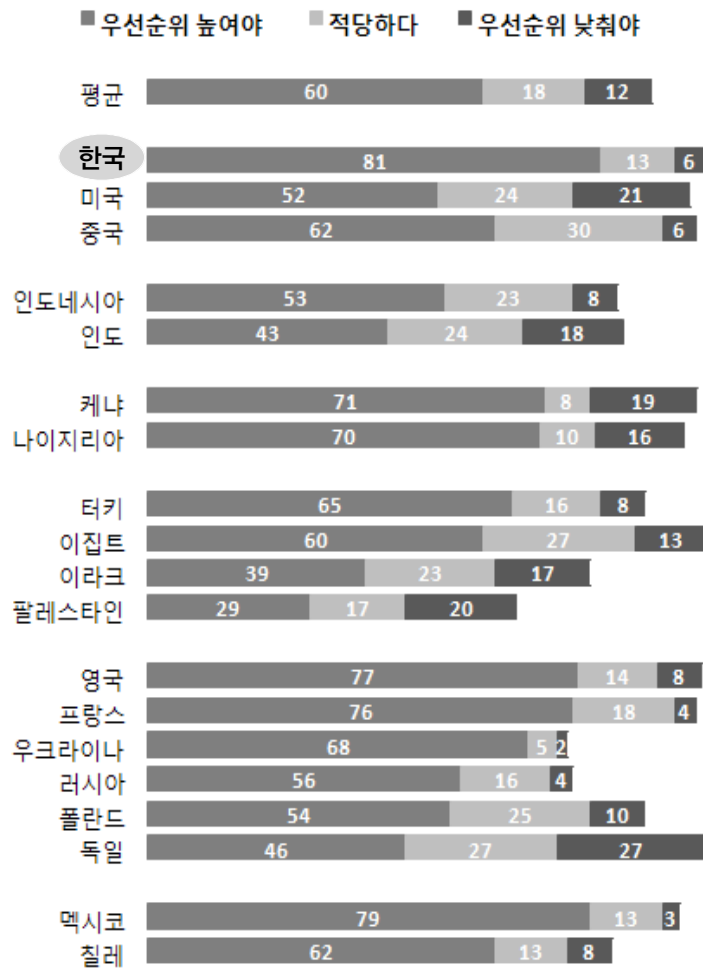
각 국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일부 개도국과 중동국가들을 제외하면 앞으로 기후변화 정책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해야 한다는 데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계인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정부의 지금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조사 결과 세계인의 60%가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정책에 지금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OECD 선진국에서는 멕시코 79%, 영국 77%, 프랑스 76%가 기후변화에 대한 보다 능동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미국은 52%로 다소 낮았지만 과반수는 넘었다. 신흥경제 강국들 사이에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렸다.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각각 62%, 53%가 정부가 지속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둘 것을 주문한 반면 인도에서는 43%만이 이에 동의에 온도차이가 있었다.

한국의 경우 응답자의 81%가 지금보다 정부가 보다 기후변화 대응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고 답해 19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 이래 기후변화 문제를 포괄하는 녹색성장을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하고 국제사회에서도 녹색아젠다 전파에 힘써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기후변화 정책에 제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능동적인 관심과 정책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강조해온 녹색성장이 국민들의 눈에 기후변화 자체에 대한 대책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미래 신성장동력이라는 점이 집중적으로 강조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국민들은 기후변화 산업의 육성을 통한 성장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 위협 자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셈이다.

[그림2] 현재와 향후,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정책 우선순위 응답비율 (단위 %)



* 응답자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부여해야 할 정책우선순위에 대한 기대 점수(0-10점)와 현재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정책우선순위에 대한 평가 점수(0-10점)와 의 차를 구해 (+)가 나오면 '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는 입장, 0일 때는 적당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입장, (-)가 나온 응답은 '현재보다 우선순위를 낮춰야 한다' 는 입장이 된다. 본 그림은 각 입장에 속하는 응답비율임.

기후변화이슈, 워비곤 호수 효과는 경계해야

- 나는 남보다 우월하다는 워비곤 호수 효과 (Lake Wobegon effect)
- 중국, 한국, 미국인 들 사이에 높게 나타나, 당위적 여론쏠림 가능성 높아

한국인을 비롯한 전 세계인은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각 정부는 다수 국민이 강조하는 기후변화 및 환경이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 국민여론에 잠재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감아할 필요가 있다. 환경문제와 같은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계산보다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정답이 존재하는 규범적인 이슈에 대한 국민여론에서 종종 자신이 평균적인 인식 보다 바람직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워비곤 호수 효과’가 나타나곤 한다. 여론조사 결과 해석에서 워비곤 호수 효과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우선, 자신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해당 이슈에 대한 솔직한 자신의 입장 대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답변을 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이 경우 바람직해 보이는 특정 입장으로 여론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 대한 평가절하와 자기 생각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으로 인해 구성원들 간 의견 조정과 타협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즉 압도적 다수 여론이 기후변화 문제를 중시한다고 해도 워비곤 호수 효과가 개입될 경우 실제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여론의 합의수준이 떨어지고 이견과 갈등이 적지 않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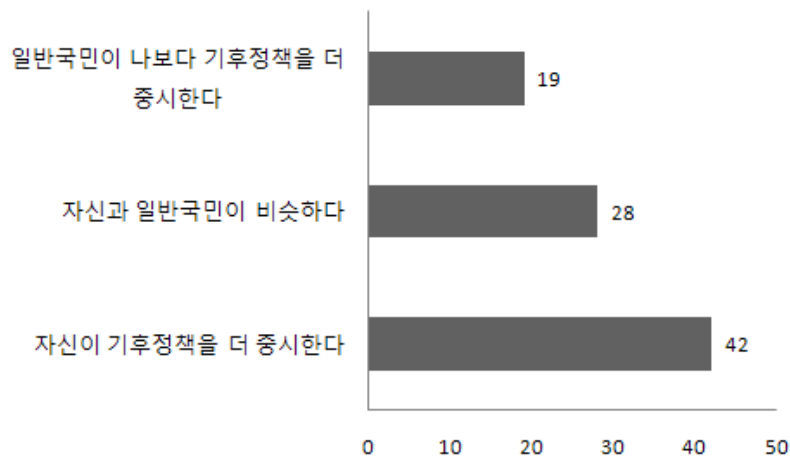
워비곤 호수 효과란?

살마들의 심리를 묘사한 이론 중 하나로 자신이 평균보다 낫다고 믿는 오류를 말한다. 여기서 워비곤 호수는 풍자소설가 개리슨 케일러(Garrison Kellor) 작품에 나오는 가상의 마을로 이 마을에서는 여자들은 힘이 세고 남자들은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아이들은 평균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있다. 평균 이하가 없다는 오류를 풍자하는 것으로 구체적 근거가 충분치 않아도 자신은 타인보다 착하고, 능력도 뛰어나며, 행운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심리적 합리화와 위안을 얻으려는 경향을 지칭한다(출처: 두산백과)

실제로 기후변화 정책우선순위에 대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지 물어 본 결과 자신이 생각하는 정책우선순위 만큼 다른 사람들은 중요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자신이 다른 평균적인 사람들보다는 기후변화 정책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응답이 42%였다. 다른 사람도 자신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28%에 그쳤다. 더구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이 기후변화 정책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응답은 19%에 그쳤다. 매릴랜드 대학의 스티븐 켈 교수는 “확실히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 평균적인 사람들 보다 중요시한다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 국민들의 경우 평균보다 자신이 기후변화에 대해 보다 강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무려 75%로 중국(77%)과 함께 이들 나라 여론 사이에 상대적으로 높은 워비곤 호수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52%)이나 독일(52%) 역시 맹목적인 우월주의와 다른 여론에 대한 평가 절하하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준다. 워비곤 호수 효과가 발생할 경우 특정 이슈에 대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입장에 대해 실제 이상으로 과도한 여론의 솔림현상으로 나타나곤 한다. 이는 실제 여론을 왜곡하거나 실질적인 인식의 편차를 무시하게 함으로써 보다 객관화된 문제인식과 정책에 대한 합의 과정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1] 전체 응답자 속에 나타나 워비곤 호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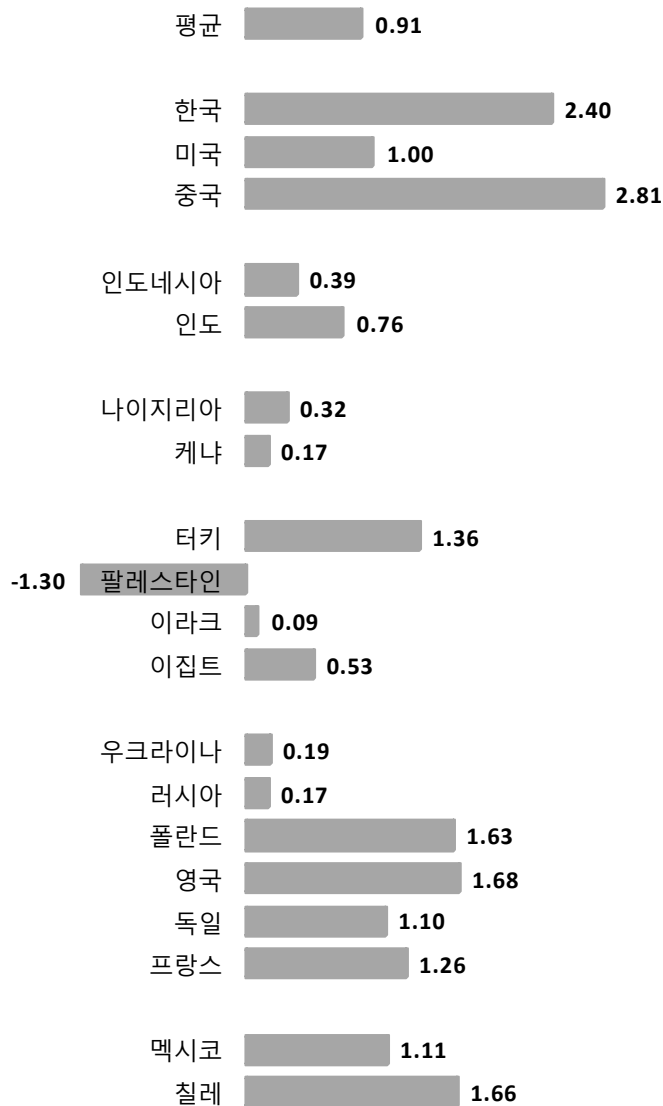


실제로 기후변화나 환경문제의 경우 당위적 차원에서는 누구나 반대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그러나 현실 정치경제 영역에서 환경문제가 국가나 개인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경우 당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개도국들의 탄소배출을 억제하려는 선진국과 환경을 위한 규제 보다는 경제성장에 집중하려는 개도국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은 국제사회에서 심심찮게 목격된다. 최근 세계 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미국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국제사회 대다수가 동의하는 교토의정서의 승인을 거부해 온 바 있다. 당장 개인 차원에서는 그린벨트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선뜻 개발이익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이다.

결국 구체적이면서도 복합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대해 개인 자신의 생각이 평균적 사고보다 우월하며 또한 우월해야 한다는 믿음이 나타나는 기초한 워비곤 효과는 현실적인 이해관계 타협과 조정을 위한 구체적 논의와 토론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나타나는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를 절대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구

체적인 정책결정과정에서 언제든지 여론의 갈등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림2] 본인 자신과 자신의 평가한 평균적인 국민들의 기후변화 정부 정책 평가간 차이 :
워비곤 호수 효과 (단위 : 점)



* 응답자가 답한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는 점수에서 다른 일반국민들이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얼마나 부여할 지 평가한 점수의 차이로서 (+)의 경우 자신이 평균적인 국민들보다 기후정책을 중시하고 있다는 평가가 되는 셈이다. 0일 경우는 같으며, (-) 자신 보다 평균적인 국민들의 평가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EAI(동아시아연구원) · 한국리서치 WPO 국제여론조사 한국조사 개요

모집단	●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표본크기	● 600명
표본추출	● 2008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게 무작위 추출
표집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4.1\%$
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응답율	● 12.9%
조사기간	● 2009년 6월 5일
조사기획	● 월드퍼블릭오피니언 · 동아시아연구원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